

제 40 호

발행일 2022. 12.

Gwangju Welfare
Research Institute
News

광주복지 BRiEF

Contents

01_1p
들어가며

02_2p
발달장애인의 개념

03_2p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특성

04_4p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참여 특성

05_8p
결론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생애주기별 사회참여 특성

1. 들어가며

- 광주광역시 장애인구 중 발달장애인은 2021년 12월 기준 8,282명으로 광주광역시 전체 등록장애인구 69,819명의 11.8%를 차지하고 있다. 2013 대비 약 23.7%가 증가하여 최근 6년 동안 연평균 5.4% 증가하였다. 전체장애인 대비 발달장애인 수는 상대적으로 소수이지만 전체 중증장애인(1~3급)의 약 21.8%를 발달장애인이 차지하고 있으며(보건복지부, 2016),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어 특별한 관심을 요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희 등, 2013).
- 이러한 증가 추이를 반영하듯 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은 장애로 인해 자기관리 및 의사결정, 사회참여, 자립 등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서 수행능력이 현저히 제한되어 타인의 돌봄과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다수다(한국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1). 특히, 사회활동 및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고 성인기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이다.
- 발달장애인에게 사회참여란 주어진 환경 안에서 목적이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과 일상생활활동을 실행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발생한다(AOTA, 2014). 또한, 그들이 속한 사회 내에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 존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서 사회 활동과 참여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신은경·곽지영, 2008; 신유리·김은경, 2011; 임혜경·박재국·김은라·장진순, 2015). 본고는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 참여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발행인 김만수
발행처 (재)광주복지연구원
주 소 61986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149, 2층
TEL 062-603-8399
FAX 062-603-8377
홈페이지 www.gwri.kr

2. 발달장애인의 개념

- 발달장애인의 개념적 정의는 법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장장애인을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법적 정의

구분	장애종류	내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지적장애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자폐성장장애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외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자료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 및 특성

1)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현황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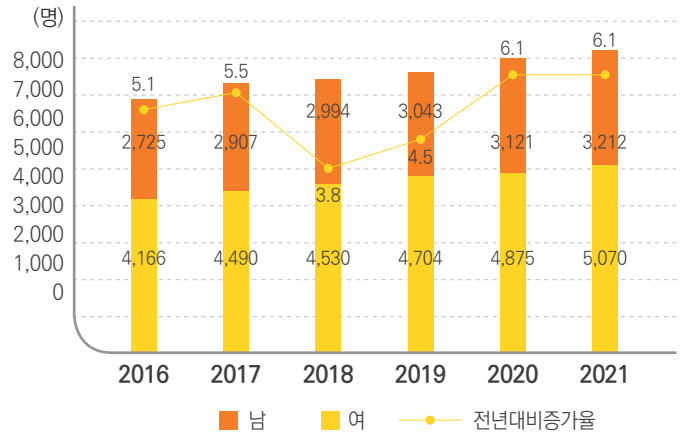
- 전국 발달장애인 수는 255,207명으로 전체 등록장애인 2,644,700명 대비 9.6%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의 발달장애인은 8,282명으로 전국 발달장애인의 3.2%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등록장애인 69,819명의 11.8%에 해당된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 7,303명(88.0%), 자폐성장장애 980명(11.9%)으로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인구수는 동구 542명(6.5%), 서구 1,522명(18.4%), 남구 1,291명(15.6%), 북구 2,454명(29.6%), 광산구 2,473명(29.9%)이 등록되어 있다.

구분	발달장애인			지적장애		자폐장애	
	합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전국	255,207	161,593	93,614	133,375	88,182	28,218	5,432
광주광역시	8,282	5,070(61.2)	3,212(38.8)	4,264	3,038	806	174
동구	542(6.5)	313(3.8)	229(2.8)	263	224	50	5
서구	1,522(18.4)	955(11.5)	567(6.8)	789	532	166	35
남구	1,291(15.6)	721(8.7)	570(6.9)	582	542	139	28
북구	2,454(29.6)	1,524(18.4)	930(11.2)	1,302	875	222	55
광산구	2,473(29.9)	1,557(18.8)	916(11.1)	1,328	865	229	51

1)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등록 현황 2021년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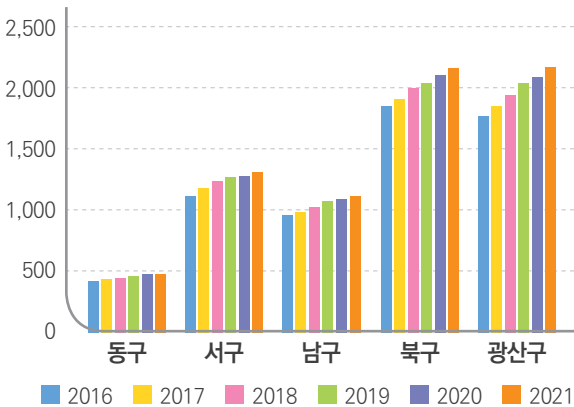
-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은 2016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21년 기준 8,282명으로 발달장애인 남녀 성비가 6:4로 분포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증가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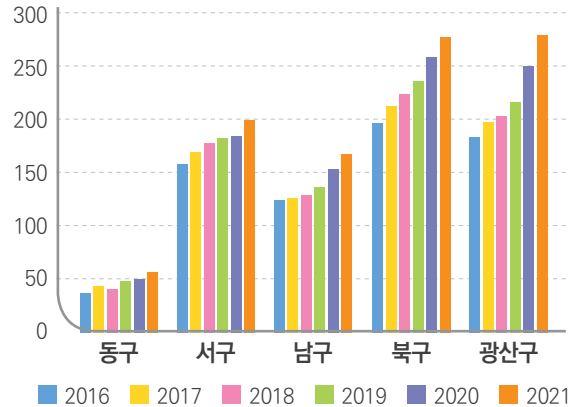


- 자치구별 최근 5년 동향을 살펴보면, 지적장애는 북구, 광산구, 서구, 남구, 동구 순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폐성장애는 북구, 광산구, 서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019년 이후부터 북구, 광산구, 남구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 지적장애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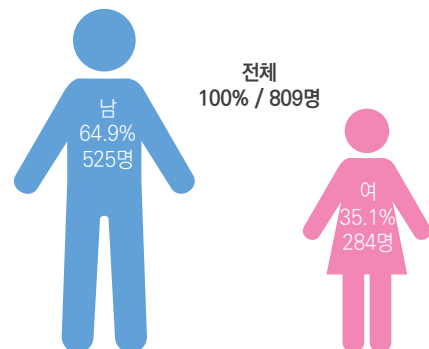


자치구별 자폐성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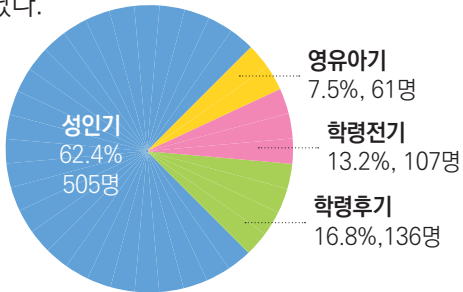


2)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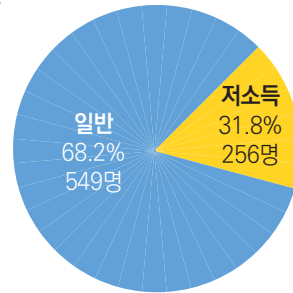
- 2022년 7월 19일 ~ 9월 8일까지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내용 중 일부만 발췌한 내용으로 광주광역시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성별 : 조사 대상자는 남자가 525명(64.9%), 여자 284명(35.1%)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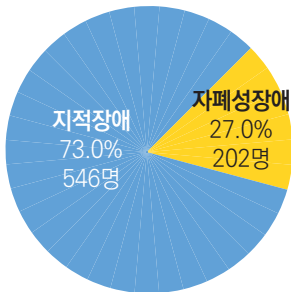
- 생애주기 :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영유아기 61명(7.5%), 학령전기 107명(13.2%), 학령후기 136명(16.8%), 성인기 505명(62.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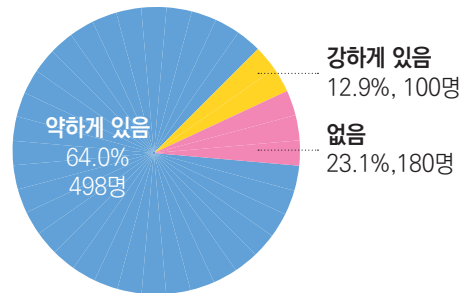
- 경제적 상태 : 경제적 상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를 포함하여 저소득으로 구분된 256명(31.8%)과 일반 549명(68.2%)으로 나타났다.



- 발달장애 유형 : 조사는 총 8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7세 미만 대상자 61명은 장애진단 전 단계인 발달지연으로 분류하여 제외하였다. 총 748명 중 지적장애가 546명(73%)으로 나타났고, 자폐성장애가 202명(27%)으로 나타났다.



- 도전행동 빈도/강도 : 도전행동 정도는 자해·타해·성·집착·안전 및 위협·기타행동 등에서 빈도와 강도 중 한 개 이상 '강하게 있음'에 해당이 되면, 도전행동 유형을 '강하게 있음'으로 분류하였다. 조사 참여자의 도전행동 정도를 살펴보면, 도전행동 '없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180명)로 나타났고, '약하게 있음'이 64.0%(498명)로 나타났으며, '강하게 있음'이 12.9%(100명)로 나타났다.



4.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사회참여 특성

- 가까이 지내는 친구 수 :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 및 지인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본 결과, 평균 3.51(SD=4.8)명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고, 생애주기에 따라 학령후기는 평균 3.08(sd=4.2)명, 성인기는 3.64(sd=4.9)명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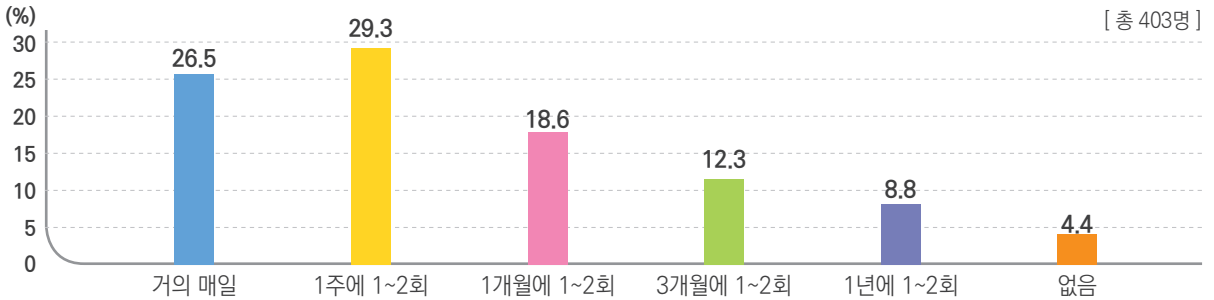
가까이 지내는 친구 수

(단위 : 명)

구분		N	평균(명)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590	3.51	50.0	4.8
생애 주기	학령후기	130	3.08	30.0	4.2
	성인기	460	3.64	50.0	4.9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유효응답(무응답 제외)

- **가까이 지내는 친구와 만남 횟수** : 친구·이웃·지인과의 만남 횟수를 살펴본 결과, ‘거의매일 만난다’는 응답이 26.5%, ‘1주 1~2회’가 29.3%, ‘1개월 1~2회’ 18.6%, ‘3개월 1~2회’ 12.3%, ‘1년 1~2회’ 8.8%, ‘없음’이 4.4%순으로 나타났다.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유효응답

- **정서적 도움과 지지 종합** : 가족, 친구/이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주변인으로부터의 정서적 도움 및 지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의 정서적 도움과 지지’는 평균 71.0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는 54.18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는 62.07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는 ‘가족의 정서적 도움과 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는 학령후기보다 성인기에 더 큰 도움과 지지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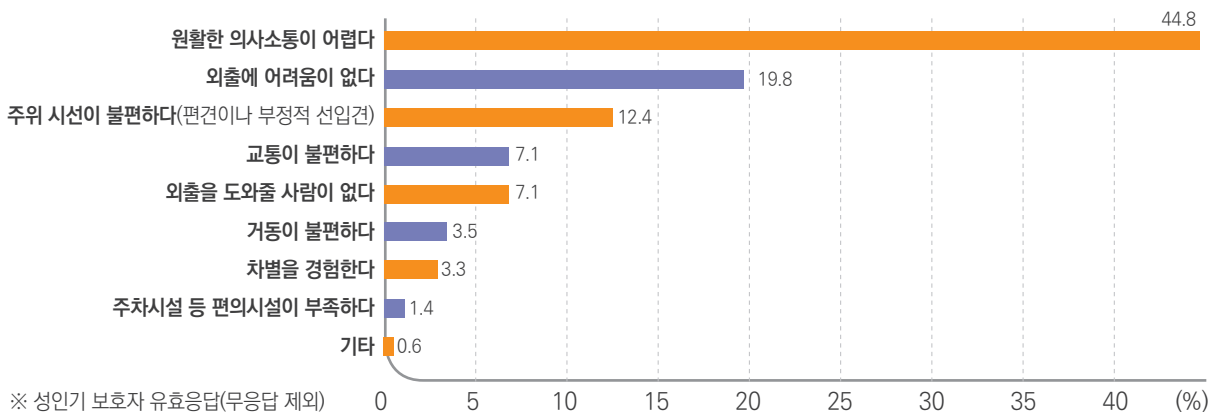
정서적 도움과 지지 종합

(단위 :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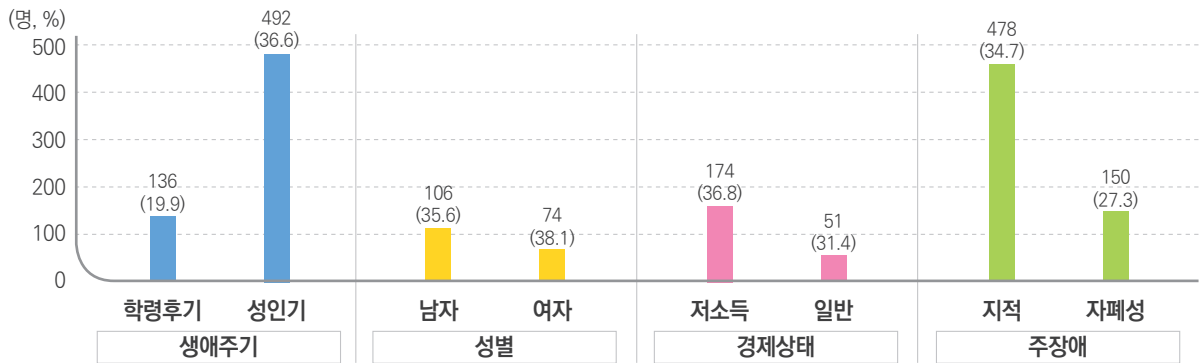
구분	N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		주변 사람들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정서적 도움과 지지	
		평균(100점 만점)	F	평균(100점 만점)	F	평균(100점 만점)	F
전체	641	71.00	-	54.18	-	62.07	-
생애 주기							
학령후기	136	66.42	4.229*	55.88	.618	53.92	12.864***
성인기	505	72.26	4.229*	53.70	.618	64.31	12.864***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전체응답 *** p<.001, ** p<0.1,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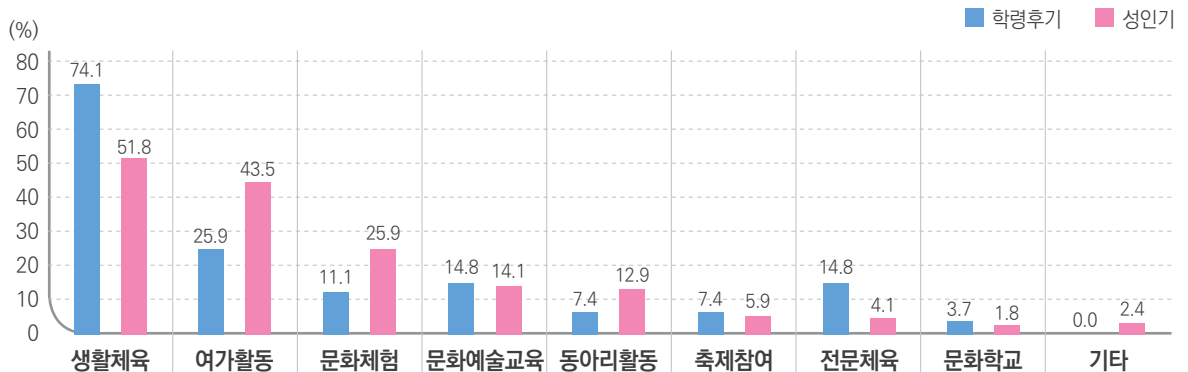
- **외출 시 고충** : 발달장애인의 외출 시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면,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 4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외출에 어려움이 없다’ 19.8%, ‘주위 시선이 불편하다(편견이나 부정적 선입견)’ 12.4%, ‘교통이 불편하다’ 7.1%, ‘외출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 7.1%, ‘거동이 불편하다’ 3.5%, ‘차별을 경험한다’ 3.3%,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 1.4%, 기타 0.6%로 나타났다.



-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 참여 여부 :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 참여는 492명 중 36.6%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생애주기별 학령후기 19.9%, 성인기 36.6%로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났다($\chi^2=13.500$, $p<.001$).



- 체육·문화 활동 참여 영역 :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영역을 살펴보면, ‘생활체육’이 54.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문화학교’가 2.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성인기의 체육·문화 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생활체육’, ‘문화예술’, ‘전문체육’ 등 3개 영역에서는 학령후기가 더 높게 나타났다($\chi^2=17.380$, $p<.05$).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중 체육·문화 활동 참여 유효응답자(무응답 제외)

- 체육·문화 활동 참여 횟수 : 지난 한 달간 체육·문화 활동 참여 횟수는 월 평균 5.17($sd=5.0$)회 참여하였고, 최대 28회까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학령후기는 월 평균 체육·문화 활동 참여 횟수가 월 평균 6.63($sd=6.5$)회였고, 성인기는 월평균 4.93($sd=4.7$)회 참여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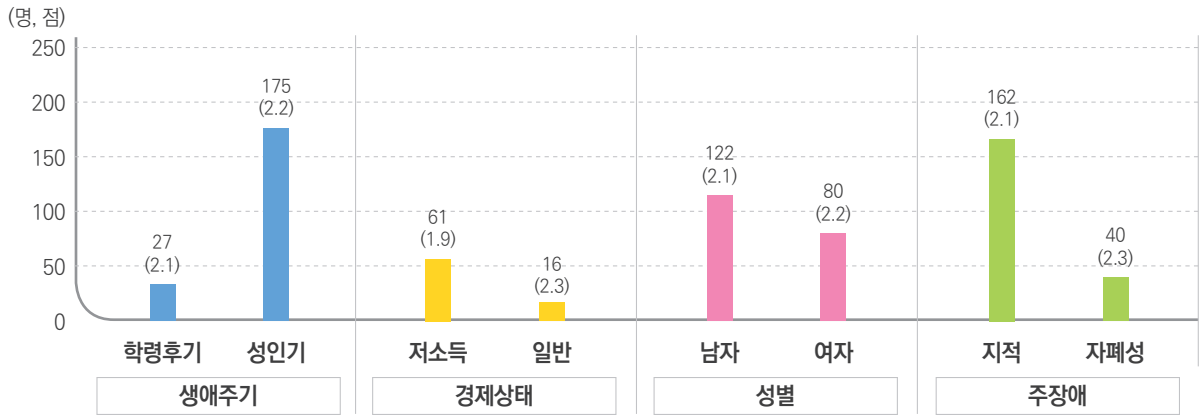
체육문화활동 참여 횟수

(단위 : 명, 회)

구분	N	평균(회)	최대값	표준편차
전체	187	5.17	28.0	5.0
생애주기	학령후기	27	6.63	6.5
	성인기	160	4.93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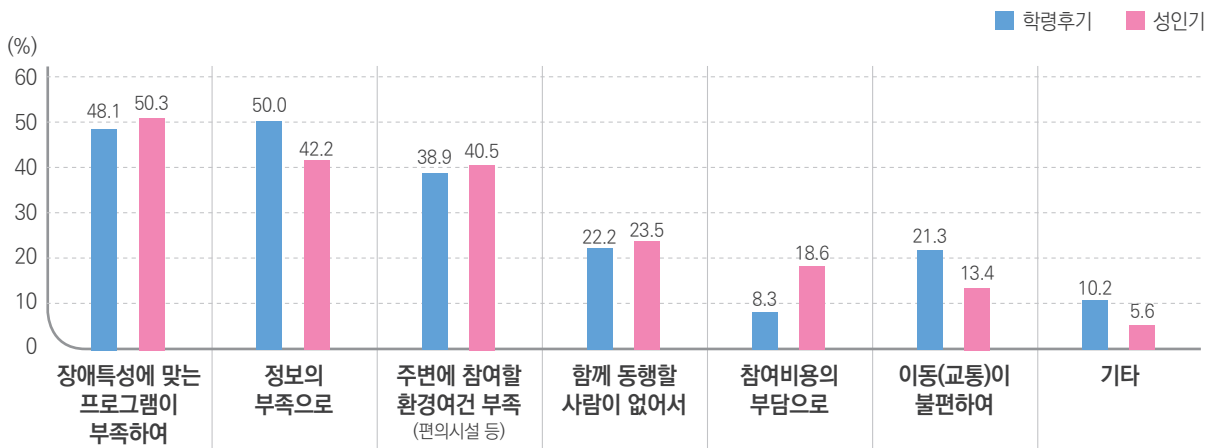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중 체육·문화활동 참여 유효응답자(무응답 제외)

- **체육·문화 활동 참여 만족도** : 발달장애인이 참여하고 있는 체육·문화 활동 만족도를 살펴보면, 평균 2.1점으로 낮게 나타났고, 생애주기별 체육·문화 활동 참여 만족도는 ‘학령후기’ 2.1점, ‘성인기’ 2.2점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상태별 ‘저소득’이 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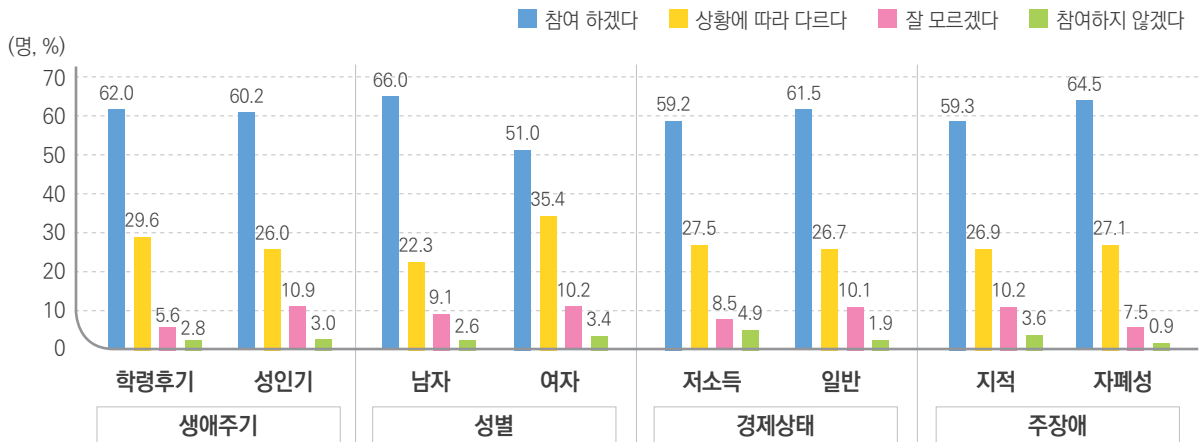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중 체육·문화활동 참여 유효응답자(무응답 제외) 주 : 1점:매우 만족, 2점:만족, 3점:보통, 4점:불만족, 5점:매우 불만족

-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 :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에 대해 살펴 보면,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가 49.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정보 부족으로’가 44.2%, ‘주변에 참여할 환경여건(편의시설 등) 부족’ 40.1%, ‘함께 동행 할 사람이 없어서’ 23.2%, ‘참여비용의 부담으로’ 15.9%, ‘이동(교통)이 불편하여’ 15.5%, 기타 6.8%로 나타났다. 생애주기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성인기가 학령후기보다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학령후기보다 성인기는 참여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학령후기는 성인기보다 이동(교통)에 불편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16.730, p<.05$).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중 체육문화활동 미참여 유효응답자(무응답 제외)

- **체육·문화 활동 참여 의향** :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체육·문화 활동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하겠다’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애주기별 참여 의향은 성인기 60.2%, 학령후기 62.0%로 나타났고, 성별에 따른 ‘참여 하겠다’는 여자(51.0%)보다 남자(66.0%)가 더 높게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참여하겠다’는 의향은 남자(22.3%)보다, 여자(35.4%)가 13.1% 더 높게 나타났다($\chi^2=9.865$, $p<.01$).



※ 학령후기·성인기 보호자 중 체육문화활동 미참여 유효응답자(무응답 제외)

5. 결론

- 광주광역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특성을 살펴보면, 평소 가깝게 지내는 친구나 이웃 및 지인의 수가 평균 3.5명으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에게 가족 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부터 받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는 학령후기보다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더 높게 나타났다. 발달장애인의 외출 시 어려움은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다’가 가장 높았고,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 참여율은 학령후기보다 성인기의 참여가 높게 나타났다.
- 체육·문화 활동 참여 영역은, ‘생활체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생애주기에 따라 성인기는 체육·문화 활동 참여가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참여하고 있는 체육·문화 활동 만족도는 낮게 나타났고, 체육·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장애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이 부족하여’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정보 부족으로’, ‘주변에 참여할 환경여건(편의시설 등) 부족’등이 높게 나타났다. 80%이상의 발달장애인은 향후 여건이 조성된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번 조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지역사회 체육·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역사회에 발달장애인의 여건에 맞는 체육·문화 활동이 부족하다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지역사회 체육·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발달장애인 전용 체육문화 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인다.